

농업용수 부족지역에 '영농급수'

**강수량 적어 모내기 차질
파주·강화군등 29억 투입
장비·긴급용수 추가 지원**

정부가 강수량 부족으로 인해 모내기용수에 차질을 빚고 있는 지역에 긴급 영농급수를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강수량 부족 탓에 저수지 고갈 등 모내기에 어려움을 겪는 파주시와 강화군 등에 긴급 급수대책비 29억원을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영농급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파주, 강화, 철원지역에 지난해 9월부터 지자체·한국농어촌공사 등과 협력해 선제 농업용수확보대책을 추진, 저수지와 수로 미리 물 채우기 사업 등을 전개해 1천600만여의 농업용수를 확보해 대부분 지역에서 모내기 등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인천, 경기 북부지역, 강원 영동지역은 지난달까지 강수량이 평년 대비 50% 이하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강화군 양사면(483ha), 파주시 군내면(150ha)에서 농업용수가 부족해 모내기를 못하는 지역이 대거 발생함에 따라 긴급 영농급수대책

비를 지원하게 됐다.

더욱이 6월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가뭄 장기화와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농식품부는 각 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제한급수 등 농업용수 절약과 함께 농업용수 부족지역에 가용 자원 및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급수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상 및 작물생육상황 등을 꾸준히 관찰해 가뭄이 확산할 경우 긴급 용수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

14.1 X 11.0 cm

모내기도 못한 채 타들어가는 農心

긴 가뭄... 파주 민통선 가보니

살길 막막, 정부에 긴급대책 요구

1일 오후 파주시 장단면 노상리 민통선 지역 내 통일촌 마을에서 만난 이완배 이장(62)은 깊은 한숨부터 몰아 쉬었다. 예년 같았으면 벌써 모내기 작업을 끝냈어야 하지만 계속되는 가뭄으로 이 지역 내 골짜기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파놓은 임시 웅덩이가 모두 말라버려 자칫 올해 농사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다.

노상리 일대에는 이 이장을 비롯해 100여가구의 민통선 출입 농가들이 벼농사를 짓고 있지만 계속되는 가뭄과 임진강 염도 상승에 따른 농업용수 공급 중지, 북한에서 건설한 댐 탓에 원활한 물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계단식 논밭은 누런 바닥을 드러낸 채 짝짝 갈라져 있었다. 모양새만으로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저수 받은 땅이라는 생각마저 들게 할 정도였다. 하지만 대다수 농가는 이달 20일이면 사실상 모내기 시즌이 끝나 올해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데도 농어촌공사에서 파 준 관정에서 연방 양수기를 돌리며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이 나올 때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

3만3천㎡의 농지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는 이 이장은 “작년에도 생각하지 못

한 한해로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했는데 올해는 그 정도가 더 심하다”며 “특히 올해는 저수율이 34%까지 떨어지면서 민통선 내 양수장은 이미 임진강이 메마른 탓에 사실상 폐쇄됐고, 농어촌공사에서 파 준 관정에서는 물 한방울 제대로 나오지 않아 논에 물대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답해했다.

인근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는 서성권 씨(65)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모내기는 커녕 집 앞에 수북이 쌓인 모판만 바라보며 비가 내리기를 하염없이 기다릴 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민통선 내에서 벼농사 면적이 가장 넓은 대성동 마을도 저수지가 모두 말라버려 사실상 올해 농사는 접어야 하는 상황. 특히 이 지역들은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장단콩을 생산하는 곳으로,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콩 농사를 시작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부족한 농업용수로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상태다. 서씨는 “12일까지는 콩 농사를 위한 농업용수가 확보돼야 하는데 그저 하늘이 원망스럽다”며 “지금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긴급 대책을 세워 주지 않으면 우리 농민들은 살길이 막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현재 민통선 지역 농민들을 위해 관정을 파주고 있지만 물이 나오는 지역이 많지 않아 용수 확보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11.3 X 19.2 cm

I 지지대 I



뚜르 드 DMZ

사이클리스트의 행보는 인생의 행보와 닮아있다. 쉴 새 없이 달려야 하고 수 많은 난관에 부딪힌다. 잠시 쉬기도 하면서 의지를 다진다. 그리고 다시 끝을 향해 달린다. 꿈을 향해 달린다. 영화 '뚜르 드 프랑스'기적의 레이스'가 그리는 여정이다. 2013년 개봉된 영화 '뚜르 드 프랑스'는 가족과 직장을 모두 잃은 프랑수아가 자신의 어릴 적 꿈이었던 사이클리스트가 되기 위해 '뚜르 드 프랑스'에 참가해 자신과의 레이스를 펼치는 이야기를 담았다.

영화의 배경이 된 '뚜르 드 프랑스(Tour de France)'는 매년 7월 프랑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고의 사이클 대회다. 전 세계 사이클리스트의 꿈의 무대로 올해로 102번째 열리게 된다. 매일 한 개의 스테이지씩 총 21개의 스테이지를 3주 동안 주행해야 하는 장기 레이스인데다가 악명 높은 난코스라 알려져 사이클리스트들 사이에 선 꼭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 지옥의 레이스로 유명하다.

프랑스에 '뚜르 드 프랑스'가 있다면 한국에는 '뚜르 드 디엠지(Tour de DMZ)'가 있다. 뚜르 드 DMZ는 끊어진 한반도의 허리, 비무장지대(DMZ)를 자전거로 달리는 행사다. 분단의 현장에서 폐달을 밟으며 통일 의지를

다지는 퍼레이드로 지난 30일 경기도 연천과 강원도 철원 일대에서 2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2015 뚜르 드 DMZ 평화누리길 자전거 퍼레이드'는 경기도와 강원도, 행정자치부가 주최하고 경기일보·경기관광공사 등이 주관했다.

올해 행사는 경기도 연천 공설운동장을 출발해 신탄리역을 거쳐 강원도 철원군의 백마고지역, 월정리역, 노동당사를 돌아오는 61km구간에서 펼쳐졌다. 그동안 경기도 민통선 일대에서만 열리다가 올해는 경기·강원 두 광역자치단체가 함께 했다. 경기도와 강원도는 번갈아가면서 매년 뚜르 드 DMZ를 개최하기로 협약했다. 또한 접경지역의 자연·역사·문화·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동서횡단 자전거 구간(연장 550km)을 개발해 해외 선수와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국제대회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올해 뚜르 드 DMZ는 DMZ를 공유하고 있는 경기도와 강원도 두 지자체가 공동 개최한 것만으로도 뜻이 깊다. 이 행사가 DMZ 접경지역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DMZ에서 토의·체험 위주 교육 비상사태 공무원 대응능력 향상

경기도는 2일부터 9월 24일까지 캠프그리브스 DMZ 체험관에서 31개 시·군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를 비롯한 공무원 2천4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올해 분단 70주년을 맞아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분단의 현장인 DMZ에서 토의 및 체험위주의 교육을 통해 비상사태 발생 시 공무원들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안보와 통일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비상대비 교육이 강의식으로만 진행돼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아 교육 효과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교육은 DMZ 현장에서 체험식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교육생들의 높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교육은 총 20회가 실시되며, 1회당 100~150명이 참여해 1박 2일에 걸쳐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1일차에는 비상대비 실무, 안보 특강, 훈련 등에 대한 분임 토의를 통해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2일차에는 제3땅굴, 도라전망대 등 최전방지역 안보 현장에서 체험위주의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상구 도 비상기획담당관은 “최근 북 잠수함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 등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는 비상대비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이 통일 및 안보관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그 의미가 더욱 크다”며 “경기도가 추진하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은 어떠한 비상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파주시 등 북부지역 3개 시·군이 휴전선에 접하고 있고, 31개 시·군 전체가 북한군의 장사정포 사정권 내에 있는 등 북한의 도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

민부군 기자 bgmin@kihoilbo.co.kr

10.0 X 13.8 cm